

# 성자 비목띠세나의 고뜨라[種性] 개념에 대한 해석 — *śaṅṅāṃ pāramitānāṃ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를 중심으로 —

이영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tatpum@gmail.com

- |                             |                       |
|-----------------------------|-----------------------|
| I. 들어가며                     | III. 소연(所緣)으로 작용하는 법계 |
| II. 성자 비목띠세나의 보살 고뜨라에 대한 정의 | IV. 맺음말               |

## 요약문

이 논문의 목표는 성자 비목띠세나가 『현관장엄론』을 주석하면서 채택한 보살의 ‘고뜨라(種性)’의 정의인 “*śaṅṅāṃ pāramitānāṃ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를 살펴보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이 개념은 이후 대덕 비목띠세나, 하리바드라, 라트나까라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M0046)

\*\* 이 논문은 2016년 9월 14일 일본 쓰꾸바 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 “Pluralism in Mahāyāna Buddhism: Strategies of Demarcation, Inclusivism and Tolerance”에서 발표하였던 “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gotra* by Ārya-Vimuktiṣeṇa: focusing on the phrase “*śaṅṅāṃ pāramitānāṃ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 논문 중 일부분의 한글 번역이다. 논문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던 사이토 아키라 선생님, 야마베 노부요시 선생님, 앤 맥도날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다만 이 한글 논문에서는 분량 상 그들의 조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산티, 아바야까라굽타 등의 『현관장엄론』 주석가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성자 비목록피세나의 독창적인 해석이다.

이 구문은 ‘[보살의 고프라는 그들이 붓다가 되는 길에서 계발하고 닦아야 하는] 육바라밀과 관련한 [성문과 벽지불보다] 뛰어남(viśeṣa)으로 법성(法性 dharmatā)로 특징지어진다’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의미가 통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살의 고프라]는 육처 중의 법성으로 특징지어진다’는 티벳역, 성자 비목록피세나와 대덕 비목록피세나의 또 다른 고프라에 대한 정의인 ‘법계는 특수함(viśeṣa)에 의하여 고프라가 된다’를 고려할 때, 앞선 정의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법계가 보살 수행의 소연(所緣 ālambana) 혹은 성자들이 지니는 출세간법의 소연(所緣緣 ālambanapratyaya)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필자는 이 문맥에 관련한 다른 주석서, 특히 ‘육처수승’(六處殊勝 ṣaḍāyatanaviśeṣa)에 대한 주석 중 종카파(Tsong kha pa)에게 전해 내려온 익명의 주석을 참조하여 이 구문을 “ṣaṅṅām āyatanānām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로 교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개선된 성자의 ‘고프라’에 대한 정의는 『보살지』 등의 초기 유가행파 문헌들에 나타난 [본성주]종성([本性住]種性 [prakṛtiṣṭha]gotra)에 대한 재해석으로, ‘법계’라는 개념을 ‘고프라’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어

성자 비목록피세나, 대덕 비목록피세나, 『현관장엄론』, 고프라(種性), 법계(法界), 육처수승, 법처(法處)

## I. 들어가며

『현관장엄론』(Abhisamayālaṅkāra)의 저자는<sup>1)</sup> 자신의 저작 5번째 계승에서 “[보

1) 계승으로 이루어진 이 주석서는 전통적으로 마이트레야나타(Maitreyanātha)에게 귀속되지만 현대 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의심스럽다. 이러한 의구심은 하리바드라(약 770-810 CE)가 8세기에서야 최초로 이 논서를 마이트레야나타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으로부터 뒷받침할 수 있다(AAĀ 1.13-18, 75.17-22; Vivṛti 1.07-14). 마크란스키는 이 문헌에 좀 더 커다란 권위를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늦은 시기에 마이트레야나타로 저자를 귀속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Makransky, John. *J. Buddhahood Embodied: Sources of Controversy in India and Tibe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p.111.

살의 수행 기반(*pratipattyādhara*)[인 고평라(*gotra*, 種性)가] 법계(法界, *dharmadhātu*)를 고유한 성질(自性)으로 한다”<sup>2)</sup>고 선언한다. 그 이후로 ‘고뜨라’는 인도와 티베트의 『현관장엄론』 주석가들에게 있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sup>3)</sup> ‘고뜨라’ 이론은 특히 여래장(*tathāgatagarbha*)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불교 사상가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예를 들자면, 80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다르마미트라(*Dharmamitra*)는 하리바드라(*Haribhadra*, ca 770-810 CE)의 『현관장엄론』에 관한 짧은 주석(*Vivṛti*)를 다시 주석하는 『쁘라스푸타파다』(*Prasphuṭapadā*)<sup>4)</sup>를 지었다.<sup>5)</sup> 그는 이 주석서에서 처음으로 여래장의 개념을 “*prakṛtiśthagotram*”[本性住種性]에 관해 논의하는 장으로 끌어들였다.<sup>6)</sup> 이후 11~12세기의 비끄라마설라 사원의 유명한 학장(學匠) 중 한 명인 아바야카라굽타(*Abhayākara Gupta*)<sup>7)</sup>는 고평라 개념을 여래장뿐 아니라 일승(一乘, *ekayāna*)의 이론과도 결부하였다.<sup>8)</sup> 언급되지 않은 주석가를 포함한 모든 『현관장엄론』 주석가들은 성자(聖者, *Ārya*) 비뭇띠세나(*Vimuktiṣeṇa*)의 주석서에<sup>9)</sup> 나타난 고평라 개념을 바탕으

2) *ādhāraḥ pratipatteś ca dharmadhātusvabhāvakah* || AA I. 5cd.

3)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오. Mano, Ryūkai, ““Gotra” in Haribhadra’s Theory”,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15.2 (Tokyo: 1967), pp.972-964 ; Ruegg, David Seyfort, “Ārya and Bhadanta Vimuktisena on the Gotra-Theory of Prajñāpāramitā”,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und Archiv für indische Philosophie* 12 (1968), pp.303-317 ; Ruegg, David Seyfort, “The Gotra, Ekayāna and Tathāgatagarbha: Theories of the Prajñāpāramitā according to Dharmamitra and Abhayākara Gupta”, in *Prajñāpāramitā and Related Systems* (Berkeley: 1977), pp.283-312 ; Kano, Kazuo, “Ratnākaraśānti’s understanding of Buddha-nature”, *China Tibetology* No 2 2015 General No. 25) (Beijing: China Tibetology Research Center, 2015), pp.59-64 ; Brunnhölzl, Karl, *Gone Beyond: The Prajñāpāramitā Sūtras, The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 And Its Commentaries in the Tibetan Kagyü Tradition* (New York: Snow Lion Publications, 1997), pp.238-292 and 428-488 ; Brunnhölzl, Karl, *Groundless Paths: The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 And Its Commentaries in the Tibetan Nyingma Tradition* (New York: Snow Lion Publications, 2012), pp.123-136.

4) *Abhisamayālaṅkārikāprajñāpāramitopadeśasāstraṭīkā Prasphuṭapadā-nāma* D (No. 3796) *shes phyin*, nya 1b1-110a3.

5) David Seyfort Ruegg, 1977, p.284.

6) David Seyfort Ruegg, 1977, p.285.

7) David Seyfort Ruegg, 1977, p.285 ; Li, Xuezhong, “Diplomatic transcription of the Sanskrit Manuscript of the *Mūnimatālaṅkāra*-Chapter 1: Fols. 1v1-3v5”, *China Tibetology* No 1 2013 (General No. 20) (Beijing: China Tibetology Research Center, 2013), pp.1-3.

8) David Seyfort Ruegg, 1977, pp.286-287.

9) 이 문헌은 흔히 ‘*Abhisamayālaṅkāravṛti*’라고 불리지만 이는 티베트어로부터 재구성한 제목이다. 사

로 자신의 고유한 학설을 발전시키고 있기에, 그들의 고프라 개념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성자 비묵띠세나의 고프라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석가들의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자 비묵띠세나의 ‘고프라’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학계에서 성자 비묵띠세나의 ‘고프라’ 이론은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루엑(Ruegg)은 성자 비묵띠세나와 그를 잇는 주석가인 대덕(大德) 비묵띠세나(Bhadanta-Vimuktiṣeṇa)가 설명한 ‘고프라’ 이론을 철저히 조사하여 1968년에 논문으로 출판하였다.<sup>10)</sup> 또한 비교적 최근에 마츠모토 시로(松本史朗)와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宣) 사이에 『현관장엄론』 계송 I. 39와 이에 대한 성자 비묵띠세나의 주석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있었다.<sup>11)</sup> 국내 학계에서도 김성철은 “*śaḍāyatanaviśeṣa*” [그의 번역에 따르면, ‘6처의 특별한 양태’ 六處殊勝]를 진여로 간주하는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로 『현관장엄론』과 이에 대한 성자 비묵띠세나의 주석을 들고서, 주석 중의 핵심 부분을 번역하고 분석하였다.<sup>12)</sup> 이러한 뛰어난 연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비묵띠세나가 설명한 고프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논문은 성자 비묵띠세나의 ‘고프라’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뛰어난 학자들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필자가 ‘성자 비묵띠세나의 고프라에 대한 독창적인 정의’라고 명명한 “*śaṅṅām pāramitānām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에 관해 위의 어

---

본에 나타난 산스크리트 제명은 ‘*Pañcaviṃśatisāhasrikāryaprajñāpāramitopadeśaṃ Abhisamayālaṅkāraśāstram*’으로 『현관장엄론』을 연상시킨다. 이에 관해서는 LEE, Youngjin, “On Two Sanskrit Manuscripts of Ārya-Vimuktiṣeṇa’s Commentary on the Abhisamayālaṅkāra”,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18 (Nonsan: 2015), pp.37-41을 참조하시오.

10) David Seyfort Ruegg, 1968.

11) Matsumoto Shirō, “The doctrine of *Tathāgata-garbha* is not Buddhist”, *Pruning the Bodhi Tree: the Storm over Critical Buddhism* (1997), pp.165-173 ; Yamabe Nobuyoshi, “The Idea of *Dhātu-vāda* in Yogacara and *Tathāgata-garbha* Texts”, *Pruning the Bodhi Tree: the Storm over Critical Buddhism* (1997), pp.201-203 ; Matsumoto Shirō and Yamabe Nobuyoshi, “A Critical Exchange on the Idea of *Dhātu-vāda*”, *Pruning the Bodhi Tree: the Storm over Critical Buddhism* (1997), p.217.

12) 김성철, 「중성의 본질에 대한 유가행파와 여래장 사상의 해석 - ‘6처의 특별한 양태(*śaḍāyatanaviśeṣa*)’ 개념을 중심으로 -」, 『불교학리뷰』10권(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p.51-55.

편 학자들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13)</sup> 필자가 아는 한 이와 동일한 어구는 인도와 티베트의 『현관장엄론』 주석서들에 나타나지 않는다.<sup>14)</sup>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현관장엄론』의 주석서인 *Abhisamayālaṅkāravārttika*에서 마치 성자와 동일인인 것처럼<sup>15)</sup> ‘고뜨라’ 개념에 대하여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덕 비묵띠세나 또한 이 어구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가 어떻게 성자 비묵띠세나의 독창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 어구를 수정(修訂)해야 하는 지에 관해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의 성자 비묵띠세나의 주석을 중심으로 하고, 대덕 비묵띠세나의 주석과 아바야까라굽타 등의 후대 주석서를 참조할 것이다. (이후 편의를 위하여 성자 비묵띠세나와 대덕 비묵띠세나를 각각 성자와 대덕으로 칭할 것이다.)

- 
- 13) 루엑 만이 별다른 설명없이 “particularity of the six perfections having as its characteristic the *dharmatā*”로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David Seyfort Ruegg, 1968, p.314.
- 14) 다만 아바야까라굽타가 관련 구절에서 “*viśiṣṭaṃ gotr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관해서는 각주 23을 참조하시오.
- 15) 최근에 이소다는 “성자 비묵띠세나의 주석서와 대덕 비묵띠세나의 주석서가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다른 버전의 번역서가 아닌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문을 제시했다. 磯田熙文, 「*Vimuktisena (Rnam sgröl sde)について*」, 『奥田聖應先生頌壽記念インド学仏教学論集』(東京: 佼成出版社, 2014), pp. 678-684. 나까무라에 따르면 대덕이 사용한 『현관장엄론』은 하리바드라가 언급하듯이 “불완전한 버전”이 아니라 “다른 리센션(recension)”이며, 그가 사용한 『이만오천송반야』 역시 성자와 달리 『현관장엄론』 체계에 의해 “개정”되지 않은 리센션(unrevised recension)이다. Nakamura, Hodo, “*Ārya-Vimuktisena’s The Earliest Commentary on the Abhisamayālaṅkāra: A Critical Edition and a Translation of the Chapters Five to Eight with an Introduction and Critical Notes*,” *Dissertation* (Universität Hamburg, 2014), pp.43-44, pp. 37-39, and p.48;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범위에서 대덕의 인용은 몇몇 구절에서 성자의 그것과 상이하다. 또한 두 비묵띠세나가 언급하는 『현관장엄론』 I. 40b와 41d는 그 내용이 다르다. 먼저 성자는 “*te punaḥ kuśalādayaḥ*”(더욱이 그 [모든 다르마]는 선 [법]등이다)와 “*ye cāsādhāraṇā muneh*”(무니의 [다른 사람들과] 공통되지 않은 [다르마]라고 읽고 있다. 이에 반해 대덕은 “*jig rten dge dang mi dge ba*”(세간의 선과 불선[법])과 “*gang dag ston pa’i stobs la sogs*”(스승(\* *sāstr*)의 십력 등의 [다르마])라는 상이한 어구를 가지고 있다. 성자와 대덕 그리고 이 두 주석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연구가 요구된다.

## II. 성자 비뭇피세나의 보살 고프라에 대한 정의

성자와 대덕은 『현관장엄론』에 대한 그들의 주석서들의 첫 번째 장(Abhisamaya) 다섯 번째 섹션에서 먼저 ‘고프라’의 의미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sup>16)</sup> 두 비뭇피세나 모두에게 있어 ‘고프라’는 보살들의 수행(pratipatti)을 뒷받침하는 기반(ādhāra) 혹은 바탕(pratiṣṭhā)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수행의 범위는 붓다가 되고자 결심을 일으키는 발심(cittotpāda)으로부터 견도에서 처음 본 진리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수도(修道 bhāvanāmārga)까지를 지칭한다. 그들은 『현관장엄론』 계승 I 37-38에 따라 수행을 통해 획득하는 다르마들을 서로 다른 상태의 구별에 따라 열 세 종류로 나누었다.<sup>17)</sup> 그리고서 성자는 『이만오천송반야』의 구절을 인용하여 보살의 고프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세존은] 그 [보살]이 이러 저러한 증득법(adhigamadharma)의 기반임을 보이기 위하여 [『이만오천송 반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수보리여! ‘보살’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padārtha)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이는 왜냐하면 [보살의] 깨달음(bodhi)이 생기거나 있다는 것이 존재하거나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존은] 이 구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즉, ① [보살의] 종성은 [그들이 붓다가 되는 길에서 계발하고 닦아야 하는] 육바라밀과 관련한 [성문과 벽지 불보다] 뛰어남(viśeṣa)으로 현상들의 참된 성질(法性 dharmatā)로 특징지어진다 (혹은 정의된다). [보살이라는 지지자(支持者)가] 담고 있는 깨달음이 실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이러한 ‘고프라’는 ‘보살’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원인이지만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 즉 실제 사물이 아니다.<sup>18)</sup>

16) 이러한 필자의 구분은 두 사본의 섹션 콜로폰에 따랐다. 다섯 번째 섹션은 “uktāḥ pratipatter ādhārālambanoddeśāḥ ||” ([보살]수행의 기반, 소연, 목표가 설해졌다)로 끝이 난다.

17)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 24v2-3, B 22r6-23r1, P 73.02-08 ; Vārtika(Tib) D (No. 3788) shes phyin, kha 34a1-34a3, Q (No. 5186) sher phyin, kha 40a7-40b2.

18) yas tasya tasyādhigamadharmasyādhāra ity āha | “apadārthaḥ subhūte bodhisattvapadārthaḥ | tat kasya hetoḥ | na hi subhūte bodher’ utpādo vāstīti vā vidyate vopalaḥyate ve”ti | anenādhēyāyā bodher’

인용에서 핵심은 보살이 비록 증득법의 기반인 ‘고뜨라’임을 인정하지만, 그가 실현하는 깨달음[菩提]이 실재(dravya)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반인 보살(=고뜨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보살 종성을 “육바라밀과 관련한 뛰어난 이고 이는 법성으로 특징지어진다”(śaṅṅām pāramitānām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o gotram)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필자가 아는 한, 성자 바로 이후의 주석가인 대덕뿐 아니라 어떠한 인도와 티벳의 『현관장엄론』 주석가들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sup>19)</sup> 이러한 문장은 그 자체만을 고려할 때 의미가 통한다.<sup>20)</sup> 하지만 성자와 대덕이 제시한 아래의 정의가 나타난 구절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2] 열네 번째 발심(發心)에서 “모든 법의 진여를 깨닫고자 하는 [보살은 반야바라밀에서 수행해야한다]”고 가르쳐졌다. 이 [인용]에서 ‘모든 법의 진여’(sarvadharmatathatā)는 공통된 법성(sāmānyadharmatā)으로서, 법은 소치(所治)와 이에 대한 대치(對治) 등에 의해 열거되는 것들을 지칭한다. [또 다른 가르침인] “법계진여(dharmadhātutathatā)를 깨닫고자 하는 [보살은 반야바라밀에서 수행해야한다]”에서 ② [dharmadhātutathatā라는 복합어는 6격 한정 복합어로서] ‘viśeṣa와 관련한 진여’로서 해석된다. 이후 [수행의 기반이라는 섹션에서] 법계는 viśeṣa에 의하여 ‘고뜨라’가<sup>21)</sup> 된다고 언급할 것이다.<sup>22)</sup>

adravyatvopapattyā ① śaṅṅām pāramitānām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o gotram bodhisattvaśabdappravṛtīnimittam, na tu vastubhūtaḥ padārtha ity āvedayati | (<sup>1</sup> bodher) BP, *bodhir* A ; <sup>2</sup> anenādheyāyā bodher) AB, *anenādheyā bodhir* P) A 23v3-4, B 23r1-23r2, P 73.08-14. “”는 성자 비록띠세나가 『2만오천송반야』로부터 인용한 부분. 이하고 동일하다.

19) 이러한 정의를 결여하지만 상응하는 구문에 관해서는 대덕의 경우 Vārttika(Tib) D 34a2-3, Q 40b2-4, 하리바드라의 경우 AAĀ 76.04-12를 보시오. 아바야까라굽타의 경우 각주 23을 참조하십시오.

20) 『보살지』에서는 육바라밀을 보살 고뜨라의 표식(gotralinga)로 보고 있다. BoBh 4.13-16: “śad imāni bodhisattvasya pāramitānām gotraliṅgānām sampadyante. yair evaṃ pare saṃjānate bodhisattvo 'yam iti. dānapāramitāyā gotraliṅgam śīlakṣāntivīryadhyānaprajñāpāramitāyā gotraliṅgam”

21) Vṛtti(Tib)에는 dharmadhātu의 번역이 생략된다. “khyad par gang gis rigs zhes 'chad par 'gyur ba de'i chos nyid gang yin pa'o ||” ([dharmadhātutathatā라는 복합어는] viśeṣa와 연관된 진여를 의미하며, 이 viśeṣa에 의해 [보살의] 고뜨라라고 설명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chos kyi dbyings’라

성자와 대덕은 ‘dharmadhātutathatā’(法界眞如)를 분석하면서 ①에 나타난 ‘viśeṣa’를 ‘dharmadhātu’(법계)로 바꾸어 쓰고 있으며, 이 ‘viśeṣa’가 법계를 보살의 종성이 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바야까라굽타가 ①과 관련한 구절에서 ① ‘viśeṣo gotram’ 대신 ‘viśiṣṭam gotram’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sup>23)</sup> 여기에서 ‘viśeṣa’는 법계가 의미하는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① ‘viśeṣa’를 ‘특정한 법계’(viśiṣṭadharmadhātu)로 풀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viśeṣa’를 ‘특정한 법계’로 이해하는 필자의 이해가 받아들인다면, ①에서 ‘육바라밀’과 ‘특정한 법계’의 관계를 해결하기에는 난점이 뒤따른다. 이것은 이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 법계가 보살의 수행에서 인식 대상(ālambana 所緣)으로 작용하고 있는, 더 나아가 성자들이 지니는 출세간법들이 일어나는 원인인 ‘인식 대상이라는 조건’(ālambanapratyaya 所緣緣)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성자 비목띠세나 주석서의 티벳역은 ①의 구문에 대해 산스크리트 사본과는 다른 “법성(法性)으로 특징지어지는 [보살의] 고프라는 육처에 속한다”(skye mched drug gi chos nyid kyi mtshan nyid kyi rigs)는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티벳역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①의 “saṅṅām pāramitānām”을

---

는 법계의 번역어를 가지고 있는 Vārtika(Tib)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한다: “khyad par gang gis chos kyi dbyings la rigs zhes bya bar 'chad par 'gyur ba de'i chos nyid gang yin pa'o ||”

22) yad uktaṃ caturdaśe cittotpāde “sarvadharmatathatām anubodhdhukāmene”ti | tatra sarvadharmatathatāyā vipakṣapratipakṣādisaṃgrhītānām dharmānām sāmānyadharmatā | ② “dharmadhātutathatām anubodhdhukāmene”ti yena viśeṣeṇa dharmadhātūr gotram ity ākhyāsyate tasya yā dharmatā | A 7v1-2, B 7r1-2, P 27.21-28.05 ; Vṛtti(Tib) D No. (3787) shes phyin, ka 25b1, Q (No. 5185) sher phyin, ka 28b5-6.

23) Munimatālamkāra의 이 구문은 [1]에 나타난 성자의 고프라에 대한 정의의 반영인 것으로 보인다. 카노 카즈오 덕분에 우리는 이 구문의 산스크리트를 참조할 수 있다 ; akhilavikalpamalāpanayanāt tu suviśuddho dharmadhātūr āvirbhavan bodhiḥ sampadyate | ata eva viśiṣṭam gotram bodhisatvaśabdapravṛtīnimitam dvāviṃśaticittotpādānām tadviśeṣānām ca cchandāt prabhṛti sannāhādipratipattīnām cādihārah | Munimatālamkāra Skt. Ms. 85v2-3=Kazuo Kano, *op. cit.*, p.60, n. 42. (그렇지만 분별이라는 더러움을 남김없이 제거함으로써 극히 청정한 법계가 나타날 때 [보살의] 깨달음(bodhi)이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보살’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원인인 ‘특수한 고프라’가 22 종류의 발심과 그들의 뛰어난 속성들에 대한 의욕으로부터 시작하여 갑옷으로 무장하는 수행(鎧甲正行)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기반이 된다.)

24) 티벳역에서는 viśeṣa의 번역어가 생략되었다.



“*ṣaṅṅām āyatanānām*”로 개정(改正)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개정은 라트나까라 산띠(Ratnākaraśānti)의 『이만오천송반야』와 연계한 『현관장엄론』의 주석서(Śuddhimatī)에서 그가 ‘보살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bodhisattvasya padārthaḥ*)을 “육처의 특별함”(skye mched drug gi khyad par)으로 해석한 것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그렇지만 필자는 이 개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자와 대덕은 『현관장엄론』 I. 37-38 계송들에 나타난 13종류의 보살, 즉 고평라 각각을 『이만오천송반야』와 연관시킨 후에 또 다른 ‘고뜨라’의 정의를 제공한다.

[3] [세존께서는] “그렇다면 [보살] 수행의 기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을 예상하셔서 『이만오천송반야』에서 “그 때문에 보살은 구상화가 없는 상태와 개념화가 없는 상태에 의하여 모든 다르마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asaktatā*)와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하여 혼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인용]에서 ‘구상화’(*kalpana*)는 사물(*vastu*)에 대한 집착을, ‘개념화’(*avakalpana*)는 사물의 특징(*vastunimitta*)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며, ‘집착이 없다’는 것은 이 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한다고 알아야 한다. ‘다르마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란 모든 다르마의 진여(*tathatā*)를 의미한다. ③ 따라서 [세존께서는] 이 [인용]으로써 ‘법계(*dharmadhātu*) 만이 성자들의 법이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보살] 수행의 기반은 본래 상태에 있는<sup>26)</sup> 고평라

25) “byang chub sems dpa’i tshig gi don zhes bya ba ni skye mched drug gi khyad par ro ||” Śuddhimatī (Tib) D (No. 3801) shes phyin, ta 102a7.

26) 이 번역어는 슈미트하우젠의 ‘*praktistha*’의 정의 중 두 번째 정의 ‘being in its natural, unrefined state’를 따른 것으로 Vṛtti(Tib)의 번역어 ‘rang bzhin du / la gnas pa’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그렇지만 Vārttika(Tib)는 ‘rang bzhin gyis gnas pa’로 번역하여 ‘innate, inherent’라고 하는 슈미트하우젠의 첫 번째 정의 혹은 야마베의 번역 ‘existing by nature’를 지지한다. (Schmithausen, Lambert. *The genesis of Yogācāra-Vijñānavāda: Responses and reflections*(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of the International College for Postgraduate Buddhist Studies, 2014), p.119, n.490 ; Yamabe Nobuyoshi, *op. cit.*, p.202). 필자가 전자의 번역을 선호하는 것은 성자와 대덕 양자 모두가 *praktistha*의 ‘*praktī*’가 ‘*dharmatā*’의 동의어로 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 둘은 ‘*praktī*’를 분명히 부사 ‘*prakṛtyā*’의 용법이 아닌 명사로서 파악하고 있다.

(praktistham gotram)이다’고 밝히시는 것이다.<sup>27)</sup>

이 구절에서 성자는 『보살지』와 『유가사지론』의 「섭사분」에서 제시된 두 종류의 고평라<sup>28)</sup> 중 첫 번째 “prakṛtisthagotra”[本性住種性] 만을 보살 수행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든 다르마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진여(tathatā)와 동일시되는 ‘법계’ 혹은 ‘특정한 법계’만이 성자들의 법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성자와 대덕, 특히 대덕은 유가행파의 문헌에 나타난 고평라의 두 번째 정의인 ‘과거 생에서 선근을 반복적으로 닦음으로써 획득한 고평라’(samudānītagotra)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sup>29)</sup> [3]의 인용 이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어진다.

[4] 다른 사람은 “고뜨라가 육처의 특별한 상태이고 이것은 조건들에 의해 획득한 것(pratyayasamudānīta)과 “prakṛti”[本性]에 머무는 것(prakṛtyavasthita)<sup>30)</sup>이라는 두 종류이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람은 “prakṛtisthagotra”[라는

27) kiṃlakṣaṇas<sup>1</sup> tarhi pratipattyādhāra ity āha | “sarvadharmāṇāṃ hi subhūte bodhisattvenāsaktatāyām asadbhūtatāyām śikṣitavyam akalpanatām anavakalpanatām copādāye”ti | tatra kalpanāvakalpane vastutannimitābhiniवेशau, tadabhāvād asakto veditavyaḥ<sup>2</sup> | asadbhūtatā sarvadharmatathatā | ③ tad anena dharmadhātūr evāryadharmahetutvāt<sup>3</sup> prakṛtistham gotram pratipattyādhāra ity upadarśayati || (<sup>1</sup> kiṃlakṣaṇas] AB, kiṃ lakṣaṇam P ; <sup>2</sup> asakto veditavyaḥ] AB(asakto), asaktir veditavyā P ; evāryadharmahetutvāt] B(dharmma), <sup>3</sup> evārya(dh)arm.a .e ++ t\* A, evāryadharmāṇāṃ hetutvāt P) A 25v6-26r1, B 24r3, P 76.12-18.

28) 유가행파 문헌에서 두 종류의 고평라에 관해서는 Yamabe Nobuyoshi *op. cit.*, pp. 195-196 ; 김성철, 앞의 논문, pp.37-38과 pp.39-40을 참조하시오.

29) Vārttika(Tib) D 36a1-2: dngos po med pa nyid yin pa'i phyir ro zhes bya ba 'dis ni chos kyi dbyings nyid 'phags pa'i chos mams kyi rgyu yin pa'i phyir rigs ni rten yin par gsal bar bstan to || rang bzhin gyis gnas pa 'di yang rigs yin gyi rkyen las byung ba ni ma yin no || “[모든 다르마]가 실재하지 않기(\*asadbhūtatā) 때문에”라는 표현에 의해 ‘법계 만이 성자들의 다르마의 원인이기 때문에, 고평라가 수행의 기반이다’는 것이 분명히 설명된다. 이 고평라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prakṛtistha)이지 조건으로부터 일어난 것(\*pratyavyotpanna)이 아니다.” ; 또한 Ruegg, 1968, pp.312-313을 보시오.

30) 이 용어는 고평라에 대한 유가행파의 문맥에서 ‘existing by nature (=innate, rang bzhin gyis gnas pa)’로 이해해야 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야마베가 ‘the gotra located on prakṛti’ 혹은 ‘the gotra existing on prakṛti’라는 마쯔모토의 해석에 반대하며 자세히 다루었다. Matsumoto Shirō and Yamabe Nobuyoshi *op. cit.*, pp. 216-217. 그렇지만 필자는 이 인용에서 성자 그리고 대덕이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이 두 비록피세나는 유가행파의 문맥이 아니라 『현관장엄론』이라는 체계에 맞추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복합어]에서 “prakṛti”의 의미를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발생시키는] 원인(kāraṇa)<sup>31)</sup>의 동의어라면 이것은 또한 조건들에 의해 획득하는 [고뜨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고뜨라 사이에] 어떠한 의미의 차이가 있겠는가? ④ 그렇지만 [우리과 같이 “prakṛti”를 “dharmatā (법성)”와 동의어로 취하여 법성에 머무르는 혹은 법성으로서 존재하는 고뜨라라고 이해할 경우 이러한 오류가 없을 것이다.<sup>32)</sup>

이 인용에서 주목할 점은 ‘prakṛtisthagotra’[本性住種性]에서 ‘prakṛti’가 ‘dharmatā’[法性]의 동의어이지 발생의 원인[kāraṇa]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앞선 ① “dharmatālakṣaṇa”(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혹은 정의되는)라는 어구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prakṛtistha’가 ‘dharmatālakṣaṇa’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취합하자면 성자의 독창적인 고뜨라 정의가 나타나는 ①을 다음과 같이 재조직할 수 있다.

①-1. 보살의 고뜨라는 **육바라밀/육처 중** 특정한 법계(visiṣṭadharmadhātu)이다. 이는 [변화하지 않는] 본성에 있는 것(prakṛtistha)으로 법성으로 특징지어지는(dharmatālakṣaṇa), 즉 법성으로서 존재하는 것(dharmatāstha)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특정한 법계’가 ‘육바라밀’과 ‘육처’중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야 하는 가이다. 이 주제를 진행하기 앞서 고뜨라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보살의 수행에서 법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이 해석에 관해서는 David Seyfort Ruegg, 1968, p.310과 p.313을 참조하였다.

32) “ṣaḍāyatanaviśeṣo gotraṃ, tac ca dvividhaṃ pratyayasamudānītaṃ prakṛtyavasthitaṃ ce”ty apare | taiḥ prakṛtisthagotre prakṛtyabhidhānasyārtho vācyah | kāraṇaparyāyaś cet tad api pratyayasamudānītaṃ iti ko’rthaviśeṣah | ④ dharmatāparyāye punar eṣa doṣo nāsti | A 26r2, B 24r4-5, P 76.24-77.03 ; Vṛtti(Tib) D 36a4-5, Q 43a3-5 ; Vārttika(Tib) D 36a4-5, Q 43a3-5.

### III. 소연(所緣)으로 작용하는 법계

야마베는 1997년 논문에서 『“현관장엄론”과 성자의 주석에서 법계(dharmadhātu)는 출세간법을 획득하는 기반으로,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출세간의 지혜가 일어나는데 있어 인식 대상[cognitive object, 所緣]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3)</sup> 세친(Vasubandhu)은 ③ “법계만이 성자들의 법이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dharmadhātūr evāryadharmahetutvāt)에 상응하는 『중변분별론』 I. 15c의 계송인 “hetutvāc cāryadharmāṇām”을 주석하면서 ‘법계는 공성(空性, sūnyatā)의 동의어 중 하나로서<sup>34)</sup> 이것이 성자들의 [인식] 대상의 토대[objective support, 所緣]으로서 작용하는 한에 있어서 성자들의 출세간법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35)</sup>

성자와 대덕의 고프라에 대한 주석 가운데 법계가 인식대상[所緣]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한 구절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절은 앞서 언급한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sup>36)</sup> 대신 두 비목록세나의 주석 중 ‘수행의 소연’(pratipatter

33) Yamabe Nobuyoshi *op. cit.*, pp.198-199. dharmadhātu (=tathatā)가 출세간법의 소연연(所緣緣)으로 작용하는 좀 더 자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Lambert Schmithausen, *op. cit.*, pp.569-570, p.572, pp.577-578, p.582, and p.594 ; 山部能宜, 『真如所緣緣種子について』, 『北畠典生教授還暦記念 日本の仏教と文化』(京都: 永田文昌堂, 1990), pp.63-87를 참조하시오.

34) 『중변분별론』 I 14에는 dharmadhātu 이외에도 bhūtakotiḥ, ānimittam, paramārthatā가 공성의 동의어로 나열되고 있다 (tathatā bhūtakotiḥ cānimittam paramārthatā | dharmadhātū ca paryāyāḥ sūnyatāyāḥ samāsataḥ || I.14 ||)

35) MAVBh 23.23-24.02: “āryadharmahetutvād dharmadhātūr āryadharmāṇām tadālambanaprabhavatvāt”; 이에 대해서는 슈미트하우젠의 번역(Lambert Schmithausen, *op. cit.*, p.571)의 다음과 같은 번역을 참조하였다. “[Emptiness is called] *dharmadhātu* because it is the cause of the dharmas of the Noble Ones, (i.e., the supramundane dharmas), for the dharmas of the Noble Ones originate from it [insofar] as [it is their] objective support (*ālambana*).”

36) 다만 다음과 같이 기존의 에디션(P)에 대한 수정을 요한다. *nanu ca dharmadhātōr gotratve<sup>1</sup> sarve gautrasthaḥ<sup>2</sup> prāpnoti tasya sāmānyavartitvāt | ⑥ yathā cālambyamāna āryadharmāṇām hetur bhavati tathā gotram ucyaṭa iti kim atrātiprasaṅgam mṛgayate | (<sup>1</sup> gotratve] A · B(ggō), gotratvaṃ P ; <sup>2</sup> sarve gautrasthaḥ] AB(sarve), sarvo gotrasthaḥ P P 77.04-07, A 26r3, B 24r5-6 ; Vārttika Vṛtti(Tib) D 36a5-6, Q 43a6-7 “[상대편의 반론:] 만약 법계가 ‘고프라’라고 한다면, 모든 [중생]은 예외 없이 고프라에 확립된 자(gautrastha)가 될 것이다. [답변:] [법계가] 인식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 성자들의 다르마를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만 ‘고프라’라고 불린다. 따라서 어떻게 이 경우에 [우리가 고*

ālambana) 섹션에서 ‘법계’가 [초]발심(〔初〕發心)으로부터 수도(修道)에 이르기까지의 보살 수행의 **인식 대상들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는 구절을 살펴볼 것이다.

[5] [『현관장엄론』 I 40a 계송에서, “[수행의] 인식 대상(所緣)은 모든 다르마다”(ālabanam sarvadharmāḥ)]라고 선언되었다. 법계만이 [이러한 수행의] 소연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소연의 청정함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중변분별론』 I.16cd와 같이] “그 [법계]의 청정은 수계, 금, 허공의 경우와 같이 인정되며 [이것은 우연적 번뇌(客塵煩惱)의 제거로부터 온 것이고 그 [법계의] 자성(自性)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는 소치(所治)와 대치(對治)라는 [이분법적] 분별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청정해진다’는 원치 않는 결과(prasaṅga)가 뒤따를 것이다.....

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면, [수행의] 기반(ādhāra=gotra=[viśiṣṭa]dharmadhātu)과 인식 대상의 특징(혹은 정의)은 서로 다르며, 인식 대상의 청정을 획득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게 된다. [전자는] 고뜨라는 [변화하지 않는] “prakṛti”를 주(主)로 삼고, 인식 대상은 vikṛti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앞서와 같이 특징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⑤ [세존은 『이만오천송

---

뜨라의 의미를 모든 중생에게 적용한다는] 과도한 적용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gautrastha를 유가행파의 문헌에서만 일어나는 전형적인 용어인 ‘gotrastha’ (Yamabe, *op. cit.*, pp.451-452)로 교정하지 않는 점에 관해서는 KP-VD 37(=folios 53v5, 54r1-4)에서 ‘gotra’ 대신 ‘gautra’가 사용되는 용례에 기반 하였다. 또한 수의 불일치 (sarve 복수, -sthaḥ 단수, prāpnoti 단수)에 관해서는 불교혼성범어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정하지 않았다. 혼성범어에서 3인칭 단수 동사의 형태가 모든 인칭과 수에 사용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BHSG §25.10 와 §28.62). 또한 단수 주격 어미 ‘-ah’가 복수 주격 어미 ‘-āḥ’로 사용된다는 용례도 발견된다 (BHSG §8.83). 아마도 산스크리트 문법에 맞는 교정은 ‘sarve gautrasthāḥ prāpnuvanti’가 되겠지만, 두 사본 모두 혼성범어의 특징을 반영한 단어와 문법들의 용례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교정하지 않았다; BoBh 211.11-14에 따르면 “gotrastha” 보살은 ‘적절한 조건을 만났을 때 무상정등각을 획득하도록 이미 결정되어진 자’를 의미한다; 나나야카라는 이 용어를 ‘gotravihāra’의 동의어로 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gotrastha, i.e., one who is established in the noble lineage, is endowed with noble qualities and high aims which ar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 bodhisattva.” Weeraratne, W. G., *Encyclopedia of Buddhism Volume V* (Srilanka, 1992), p.381.

반야』에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다르마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와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하여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떠한 의미인가? 인식대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prakṛti”와 얽혀진 “vikṛti”(변화)이지, “변이(變異, vikāra)”만은 아니라는 것이다.<sup>37)</sup>

이 구절에서 성자와 대덕은 먼저 “보살 수행의 인식 대상은 법계가 유일하며, 그 청정은 우연적 번뇌(客塵煩惱)의 제거로부터 온 것이지 그 자성의 변화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는 상대편의 견해를 논파한다. 다음으로 고평라[=법계]와 인식 대상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즉 전자는 변화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둘은 법계가 이미 인식 대상 즉 모든 다르마와 불가분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성자와 대덕은 ‘보살이 수행 즉 명상 수행 동안에 변화하지 않는 법계뿐 아니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 다르마도 그들의 인식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권위를 주기 위하여 『이만오천송반야』로부터 인용한 구절은 [3]의 고평라를 ‘본래 상태에 머무르는 것’(prakṛtistha)’으로 정의하기 위해 이미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본래 상태에 머물고 변화하지 않는 고평라, 다른 말로 바꾸자면, 특정한 법계(②)가 보살 수행의 ‘인식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것이다.

슈미트하우젠이 언급했듯이, 법성[=법계]을 인식 대상이라는 조건(所緣緣)으로 갖는 것은 심 혹은 심소이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형태의 지혜(jñāna)라는 점은 분명하다.<sup>38)</sup> 그리고 만약 법계가 보살이 지니는 지혜의 ‘인식

37) ye tu dharmadhātum evālabanaṃ manyante tair ālabanasyottarottaraśuddhivīśeṣagamaṇaṃ katham itī vaktavyam | “abdhātukanakākāśasūddhivac chuddhir iṣyata” itī ced evaṃ tarhi vipakṣapratipakṣavikalpaprahāṇābhāvāt prādeśīkasūddhiprasaṅgaḥ | ... evaṃ ca kṛtvā prakṛtipradhānaṃ gotraṃ vikṛtipradhānaṃ ālabanaṃ ubhayaṃ tūbhayatrāpratiśiddham ity ādhārālabanaṇor<sup>1</sup> lakṣaṇabhedā ālabanaśuddhigamaṇaṃ copapannaṃ bhavati | ata evāha ⑤ “sarvadharmāṇaṃ hi subhūte bodhisattvenāsaktatāyāṃ asadbhūtātāyāṃ<sup>2</sup> śikṣitavyam” itī | ko 'rthaḥ | prakṛtyanuviddhā vikṛti<sup>3</sup> ālabanaṃ na vikāramātraṃ itī |<sup>1</sup> ādhārālabanaṇor] AB, ādhāraṇālabanaṇor P ;<sup>2</sup> asadbhūtātāyāṃ] B, asadbhūtāyāṃ AP ;<sup>3</sup> anuviddhā vikṛtir] AB, anusahūtavikṛtir P) A 27r1-4, B 35r4-6, P 19.19-80.06 ; Vṛtti(Tib) D 61b1-7, Q 70a6 70b5 ; Vārttika(Tib) D 37b2 -38a1, Q 44b6-45a6.

38) Lambert Schmithausen, *op. cit.*, p.578.

대상이라는 조건'이라면, 이것은 정신적 대상의 영역이라는 법처(dharmāyatana)에 속할 것이다. 『유가사지론』의 「섭사분」에 따르면, “prakṛtisthagotra”와 동일한 개념인 “prakṛtisthadhātu”는 18계로 이루어져 있으며,<sup>39)</sup> 이것은 역시 법계 즉, 외욕처 중의 법처를 포괄하고 있다. 『아비달마구사론』에 따르면 ‘무위’(無爲, asaṃskṛta)는 법계의 영역에 속하며 법계 중의 일부(ekadeśa)이다.<sup>40)</sup> 이 무위는 성자와 대덕의 주석서에서 “이로부터 성자[의 법]이 일어난다”는 점으로부터 고평라 즉 법계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이다.<sup>41)</sup> 그렇다면 ① “viśeṣa” 즉 ③ “viśiṣṭadharmadhātu”는 다양한 인식 대상 중 특정한 법계, 즉 특정한 법처인 ‘공성’(空性)<sup>42)</sup>을 함축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①에 다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2. 보살의 고평라는 [외]욕처 중 특수함 [즉, 특정한 법계(법처)라는 공성]을 지칭하며, 이것은 [변화하지 않는 본래 상태에서 존재하며] 법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법성으로 존재한다).

39) Yamabe Nobuyoshi, 1997, p.196. 번역에 관해서는 Yamabe Nobuyoshi, 1997, p.212와 김성철, 앞의 논문, pp.39-40를 참조하시오.

40) **dravyavān ekah** | asaṃskṛtaṃ hi sārtaṃ dravyam || tac ca dharmadhātāv asty ato dharmadhātur eko dravyayuktaḥ || AKBh(Ejima) 41.05-07 ; eṣām aṣṭādaśānām dhātūnām madhye kati nityāḥ katy anityāḥ | na kaśīcat sakalo 'stī nityo dhātur api tu **nityā dharmā asaṃskṛtāḥ** | tena dhārmadhātavekadeśo nityaḥ śeṣa anityāḥ || AKBh(Ejima) 57.21-24.

41) “그렇지만 니룩파 방식에 따르면, 고평라는 [『대승장엄경』에서처럼 **guṇa** + **uttarana**로 분석되며] ‘공덕들이 일어나는 원천’을 지칭하다. 왜냐하면 이 [고뜨라]로부터 다양한 공덕들이 솟아난다 즉 일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금강반야경』에서 세존께서] ” 모든 성자들은 무위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niruktaṃ tu guṇottaraṅārthena<sup>1</sup> gotraṃ, tasmād dhi te te<sup>2</sup> guṇā rohanti prabhavanūṭy arthaḥ | evaṃ ca kṛtvocyate “asaṃskṛtaprabhāvīṭh sarvāryapudgalā” iti | (<sup>1</sup> guṇottaraṅārthena | A, *guṇottāraṅā* P ; <sup>2</sup> te te | AB, te P) A 26r6, B 24v2, P 77.29-21 ; Vārttika(Tib) D 36b4-5, Q 45b5-6.

42) 성자 비록피세나는 다음의 주석에서 범무아(dharmanairātmya)를 법계(dharmadhātu)의 동의어로 보고 있다. **dharmadhātuparame loka iti lakṣaṇāmbanato dharmanairātmyapradhāne loka** | A 30v3, B28v1, P 89.6-7 ; 성자의 주석을 충실히 따른다고 평가받는 아바야까라굽타는 법계를 일체범무자성(sarvadharmaniḥsvabhāvātā)로 정의하고 있다. rigs 'di ni ci | dmigs pa ni ci | ched du bya ba ni ci zhe na | brjod par bya ste chos kyi dbyings chos thams cad rang bzhin med pa nyid kyi mtshan nyid can kho na (Munimatālamkāra(Tib) D (No. 3903) dbu ma, a 169b6).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쯙카파(Tsong kha pa)에게 전해 내려온 ‘śaḍāyatanaviśeṣa’ 복합어에 대한 익명의 주석가의 견해로 다음과 같다.<sup>43)</sup>

다른 사람에 따르면 “여섯 번째 외적인 기반(\*bāhyam ṣaṣṭhāyatanam)인 법처의 특수함(khyad par, \*viśeṣa) 혹은 그 일부(nang tshan, \*ekadeśa?)가 진여(\*tathat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dharmatāpratīlabdha)이라고 가르쳐지기 때문이다.”<sup>44)</sup>

#### IV. 맺음말

필자의 제안에 입각한 성자의 보살 고평라에 대한 개념은 『보살지』 등의 초기 유가행과 텍스트에 나타난 ‘고뜨라’ 특히 ‘prakṛtiṣṭhagoṭra’ 이론에 대한 재해석이 될 것이다.<sup>45)</sup> 그들로부터 ‘śaḍāyatanaviśeṣa’[六處殊勝]의 개념을 빌려와 “ṣaṇṇām āyatanānām viśeṣaḥ” 형태의 6격 한정 복합어로 이해한 후, 여기에 ‘외육처’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의도는 ‘보살 고평라 그리고 그 이외의 고평라는 내적인 능력의 다름’ (āyatanaviśeṣa=indriyaviśeṣa)<sup>46)</sup>

43) 금강대 김성철 선생님이 아니라면 이 구절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필자의 주장에 확증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한다. 다만 김성철 선생님은 야마베와 동일하게 이전 펜사의 에디션(P)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중성을 진여로 간주하는 견해는 유가행파와는 다소 별개의 계통에 속하는 『현관장엄론』과 그에 대한 아리아 비록티세나의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6처의 특별한 양태’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아 쯙카파가 전하는 세 번째 설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44) Gser phreng 334,19-20: kha cig ni phyi'i skye mched drug pa chos kyi skye mched kyi khyad par ram nang tshan de bzhin nyid yin te/ chos nyid kyiis thob pa zhes pas so zhes zher ro || 원문은 김성철, 앞의 논문, p. 51로부터 재인용하였다. 번역은 Ruegg, David Seyfort, *La theorie du Tathagatagarbha et du Gotra: Etudes sur la Soteriologie et de la Gnoseologie du Buddhismes*(Paris: 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1969) p.103과 김성철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45) BoBh 3.01-04 “tatra gotraṃ katamat. samāsato gotraṃ dvididham. prakṛtiṣṭhaṃ samudānītaṃ ca. tatra prakṛtiṣṭhaṃ gotraṃ yad bodhisattvānām śaḍāyatanaviśeṣaḥ. sa tādrśaḥ parampar'āgato 'nādikāliko dharmatāpratīlabdhaḥ. 이와 거의 유사한 『성문지』의 정의와 번역에 관해서는 김성철, 앞의 논문, p.41과 p.42, n.10을 참조하시오.



으로 차별되거나 다르지 않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dharmatālakṣaṇa” (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역시 유가행파 문헌의 “dharmatāpratīlabdha” ([특정한 노력 없이] 저절로 획득한)의 변형이며, 또한 “prakṛtiśtagotra”의 의미를 “본성적으로(naturally) 존재하는 고프라”에서 “본래 상태에 머무르는 혹은 법성으로 존재하는 고프라”로 변화한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 서있다. 이러한 변형들은 『현관장엄론』에서 선언한 고프라의 정의인 법계를 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을 것이다.<sup>47)</sup> 이러한 생각과 여태까지 살펴본 자료를 근거로 삼아 필자는 ①의 “ṣaṅṅām pāramitānām”을 “ṣaṅṅām āyatanānām”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무엇 때문에 성자 비뭇띠세나 이후의 『현관장엄론』 주석가들은 [‘외]육처 가운데 특수함’이라는 고프라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측할 따름이다. 첫째, 이후 주석가들에게 법계는 이미 공성 혹은 법성 등으로 의미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계를 한정하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혹은, 둘째로는 그들이 초기 유가행파 문헌의 영향을 지우고자 하였다.

46) David Seyfort Ruegg, 1968, p.310, n.25.

47) 물론 고프라의 정의를 ‘육처수승’으로부터 ‘법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는 『유가사지론』중 후대 발전을 반영하는 『섭결택분』(Viniścayasamgrahaṇī)에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성자 비뭇띠세나의 정의와 『섭결택분』에 나타난 정의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이는 또 다른 연구 주제가기 때문에 이후 독립된 논문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조언을 해준 야마베 노부요시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

## 참고문헌

---

### 1. 원전 및 약호

- A = नेपाल에 보존되어 있는 성자 비무띠세나의 주석서 사본. National Archives of Kathmandu 5-55 = Nepal-German Manuscript Preservation Project A 37/9.
- AA = Abhisamayālaṅkāra (『현관장엄론』)
- AAĀ = *Abhisamayālaṅkāralokā Prajñāpāramitāvyaḥyā The work of Haribhdara*, ed. by Unrai Wogihara, Tokyo: The Toyo Bunko, 1932-1935.
- B = 중국 티벳자치구에 보존되어 있는 성자 비무띠세나의 주석서 사본에 대한 흑백 사진으로 왕센 리스트 중 14번째 위치.
- BHSg = Franklin Edgerton, *Buddhist Hybrid Sanskrit Grammar and Dictionary Volume I: Grammar*,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1998 (1953).
- BoBh = *Bodhisattvabhūmi A Statement of Whole course of the Bodhisattva (Being fifteenth section of Yogācārabhūmi)*, ed., by Unrai Wogihara, Tokyo, 1930-1936.
- D = 티벳역 데르게판(Derge edition)
- KP-VD = *The Kāśyapaparivarta: Romanized Text and Facsimiles*, ed. by M.I. Vorobyova-Desyatovskaya in collaboration with Seishi Karashima and Noriyuki Kudo, 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2002.
- MAVBh = *Madhyāntavibhāga-Bhāṣya*, ed. by Gadjin M. Nagao, Tokyo: Suzuki Research Foundation, 1964.
- P = Corrado Pensa, *L'Abhisamayālaṅkāravṛtti Di Ārya-Vimuktisena Primo Abhisamaya*, Roma: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67.
- Q = 티벳역 페킹판 (Peking edition)
- Vārttika(Tib) = Bhadanta-Vimuktiṣeṇa의 *Abhisamayālaṅkāravārttika*의 티벳역. (*phags pa sh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stong phrag nyi shu lnga pa'i man ngag gi bstan bcos mngon par rtogs pa'i rgyan gyi tshig le'ur byas pa'i rnam par 'grel pa*, D (No. 3788) *shes phyin, kha* 1b1-181a7 ; Q (No. 5186) *sher phyin, kha* 1a1-207a7 (vol.88, p.103-187)
- Vivṛti = *Abhisamayālaṅkāra-kārikā-śāstra-vivṛti*, ed. by Koei H. Amano, Kyoto, 2000.

- Vṛtti(Tib) = Ārya-Vimuktiṣeṇa의 주석서(*Abhisamayālamkārasāstram*) 통칭 *Abhisamayālamkāravṛtti*의 티벳역. 'phags pa sh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stong phrag nyi shu lnga pa'i man ngag gi bstan bcos mngon par rtogs pa'i rgyan gyi 'grel pa, D (No. 3787) shes phyin, ka 14b1-212a7 ; Q (No. 5185) sher phyin, ka 15b3-249a7 (vol.88, pp. 8-102)

## 2. 단행본

- *Encyclopaedia of Buddhism Volume V Fascicle 3: Good and Evil—Hung-i*, ed. by W. G. Weeratne, Sri Lanka, 1992.
- Karl Brunnhölzl, *Groundless Paths: The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 And Its Commentaries in the Tibetan Nyingma Tradition*, New York: Snow Lion Publications, 2012.
- \_\_\_\_\_, *Gone Beyond: The Prajñāpāramitā Sūtras, The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 And Its Commentaries in the Tibetan Kagyü Tradition*, New York: Snow Lion Publications, 1997.
- John. J. Makransky, *Buddhahood Embodied: Sources of Controversy in India and Tibe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 David Seyfort Ruegg, *La theorie du Tathagatagarbha et du Gotra: Etudes sur la Soteriologie et de la Gnoseologie du Buddhisme*, Paris: Ecole Francaised'Extreme-Orient, 1969.
- Lambert Schmithausen, *The genesis of Yogācāra-Vijñānavāda: Responses and reflections*,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of the International College for Postgraduate Buddhist Studies, 2014.

## 3. 논문

- 김성철, 「중성의 본질에 대한 유가행파와 여래장 사상의 해석—‘6처의 특별한 양태 (ṣaḍāyatanaviśeṣa)’ 개념을 중심으로—」, 『불교학리뷰』 10권,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p. 35-68.
- 磯田熙文, 「Vimuktisena (Rnam sgröl sde)について」, 『奥田聖應先生頌寿記念インド学仏教学論集』, 東京: 佼成出版社, 2014, pp. 678-684.

- 山部能宜, 「真如所縁縁種子について」, 『北畠典生教授還暦記念 日本の仏教と文化』  
京都: 永田文昌堂, 1990, pp. 63-87.
- Kazuo Kano, “Ratnākaraśānti’s understanding of Buddha-nature”, *China Tibetology* No 2 2015(General Bo. 25), Beijing: China Tibetology Research Center, 2015, pp. 52-77.
- Youngjin LEE, “On Two Sanskrit Manuscripts of Ārya-Vimuktiṣeṇa’s Commentary on the Abhisamayālaṅkāra”,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18, pp. 15-48.
- Xuezhu Li, “Diplomatic transcription of the Sanskrit Manuscript of the Munimatālaṅkāra-Chapter 1: Fols. 1v1-3v5”, *China Tibetology* No 1 2013 (General No. 20), Beijing: China Tibetology Research Center, 2013, pp. 1-11.
- Shirō Matsumoto, “The doctrine of *Tathāgata-garbha* is not Buddhist”, in *Pruning the Bodhi Tree: the Storm over Critical Buddhism*, 1997, pp. 165-173.
- Shirō Matsumoto and Nobuyoshi Yamabe, “The Idea of *Dhātu-vāda* in Yogacara and *Tathāgata-garbha* Texts”, in *Pruning the Bodhi Tree: the Storm over Critical Buddhism*, 1997, pp. 205-219.
- Hodo Nakamura, “Ārya-Vimuktisena’s The Earliest Commentary on the Abhisamayālaṅkāra: A Critical Edition and a Translation of the Chapters Five to Eight with an Introduction and Critical Notes,” *Dissertation*, Universität Hamburg, 2014.
- David Seyfort Rugg, “The Gotra, Ekayāna and Tathāgatagarbha: Theories of the Prajñāpāramitā according to Dharmamitra and Abhayākaragupta”, in *Prajñāpāramitā and Related Systems* (ed. by Lewis Lancaster), Berkeley: Berkeley Buddhist Studies Series, 1977, pp. 283-312.
- \_\_\_\_\_, “Ārya and Bhadanta Vimuktisena on the Gotra-Theory of *Prajñāpāramitā*”,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und Archiv für indische Philosophie* 12 Wien :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68, pp. 303-317.
- Nobuyoshi Yamabe, “The Idea of *Dhātu-vāda* in Yogacara and *Tathāgata-garbha* Texts”, in *Pruning the Bodhi Tree: the Storm over Critical Buddhism*, 1997, pp. 193-204.

## 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Gotra’ by Ārya-Vimuktiṣeṇa: focusing on the phrase “ṣaṇṇāṃ pāramitānāṃ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

LEE, Youngjin  
HK Research Professor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elucidate Ārya-Vimuktiṣeṇa’s exclusive definition of bodhisattvas’ ‘gotra’, which is given in the phrase “ṣaṇṇāṃ pāramitānāṃ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 in his commentary on the *Abhisamayālaṅkāra*. This notion has not been handed down to his successive Indian commentators such as Bhadanta-Vimuktiṣeṇa, Haribhadara, Ratnākaraśānti and Abhayakāragupta, as far as I know.

The phrase can be interpreted as “[bodhisattvas’ gotra] indicates superiority [to śrāvakas and pratyekabuddhas] with regard to six-perfections [which must be developed and practiced by them on the path to becoming a Buddha, and it is] characterized by or defined as the true nature of dharmas.’ This interpretation would make sense in itself. However, considering its Tibetan translation “[Bodhisattvas’ gotra] is characterized by or defined as the true nature of dharmas of the six sense-spheres,” and another definition of the gotra by Ārya as well as Bhadanta, that is, “the viśeṣa (here, particularity) by which dharmadhātu is to be called gotra,” we need to have a second thought about this understanding. It is more so when considering that the dharmadhātu functions as objective support (ālambana) of the bodhisattvas’ practice or as object-condition (ālambanapratyaya) of supramundane dharmas of the Noble ones.

Referring to other commentaries related to this context, especially to a comment

on the compound of ‘*ṣaḍāyatanaviśeṣa*’ by an anonymous commentator which has been handed down to Tsong Khapa, I suggested that we should amend the phrase to “*ṣaṅṅāṃ āyatanāṅāṃ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 resorting to its Tibetan translation. Ārya’s unique definition, which is revised based on my suggestion, is considered to be a reinterpretation of the [prakṛti] gotra theory represented in the early Yogācāra texts such as the *Bodhisattvabhūmi* and so on, in accordance with their agenda; in other words, introducing a new concept of dharmadhātu as gotra.

#### Keywords

*Ārya-Vimuktiṣeṇa*, *Bhadanta-Vimuktiṣeṇa*, *Abhisamayālaṅkāra*, *gotra*, *dharmadhātu*, *ṣaḍāyatanaviśeṣa*, *dharmāyatana*.

2016년 10월 23일 투고  
2016년 12월 16일 심사완료  
2016년 12월 17일 게재확정